이런 독서운동은?
책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살롱들

안이영노 _ 문화기획자, 기분좋은트렌드하우스 QX 대표

관습을 깨는 독창적인 독서운동 아이템을 찾기보다, 기본여건을 잘 파악하여 좋은 독서운동의 방향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더 낫다. 우선 독자에 대해 잘 알자. 좋은 독서운동을 하려면 현대의 독자들이 이미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행동을 더 잘 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독서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고 싶다면, 쉽게 읽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저항감을 갖지 않는 방법, 열독자가 아닌 사람들이 어렵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정독을 어려워하고, 통독이나 개독하는 습관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 읽고 빨리 읽고 많이 읽는 '엘리트 독자'가 되기를 전제하고, 깊이 있는 사색을 할 수 있는 '가을철 독자'가 되기를 강요하면서 운동을 전개하기 쉽다. 독서란 학교시험이나 학급의 칠판이 아니라, 놀이터 같은 곳 아닌가. 그리고 책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배워오지 않았는가.

다음으로, 왜 독서를 해야 하는지부터 되돌아보자. '왜'부터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좋은지에 대한 기준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의외로 쉽게 나온다. 수준 높은 문화운동이나 깊이 있는 문화기획의 비결은 반드시 인문적 차원에서 성찰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식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용적이기 때문에 읽는다. 책은 권위 있는 지적 유물이나 무거운 공부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 지혜를 찾아주고, 가족이나 사람을 만나 사귀는 준비를 하며, 마음의 여행이나 실제의 여행을 위해 비타민이 되어준다. 정신건강을 위한 헬스기구, 대화를 위한 연장, 긴장을 푸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가장 편안한 집중을 취하는 것이 바로 독서 아닐까.

위의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면, 독서에 재미를 갖게 한다는 것보다는 책을 가지고 놀게 만든다는 것이 독서운동의 방향이 된다. 책읽기가 '실용적인 것'이면서도 그 과정이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즐거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사람들 사이에 마련해 준다는, 의외로 단순한 콘셉트를 택하게 된다. 잠재독자나 어렵사리 계몽시켜야 하는 불충실한 독자에게 바른생활을 요청하고 공부해야 할 정보를 제공할 문제가 아니니다.

실질적인 선진국의 모습은, 책을 많이 사거나 많은 사람이 책을 읽는 것보다 지역적이고 일상적인 독서모임이 많아지는 것이다. 독서를 무겁고 어렵게 생각해 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읽지 않고도 책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독서모임이 필요하다. 독후감을 토의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책을 읽은 후 요약하거나 풀이해 주고,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간접독서를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편다. 모든 참가자는 독서광이 되기 이전에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를 즐겨 듣는 아이로 돌아간다. 이처럼 책 풀이와 양서를 홍보하는 자리에서 헤어진 후 참가자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성장할 것이다.

그 모임은 책에 대한 해설과 감상문을 모아, 앞으로 읽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현대의 독자들은 실제로 원래의 텍스트 그 자체보다 해설부터 접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자란다. 그것을 적극 활용하자. 그 책에 대한 다른 독자들의 생각과 감상부터 전달해 주는 것은 예비독자들의 풍부한 생각하기를 돕는다. 때로는 미디어와 인터넷에 나온 서평모음은 좋은 토론거리가 되기도 한다. 누가 꼭 책을 다 읽은 후 말하라고 했던가.

읽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한 후 읽는 운동은 현대적 습관에 맞으며 인터넷시대에도 맞는 방식이다. 이 독서모임은 독후감이 아니라 독서토의를 하는 곳이다. 현대인들은 이처럼 책을 읽는 것보다 자신의 고민이나 이야기를 찾아내고 밝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어떤 책은 이야기를 들은 후 소감을 밝힐 수도 있지만, 어떤 책의 주제와 메시지는 자신의 입장을 찾아본 후 읽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모임은 각자 책읽기보다는 책에 관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나 대화를 나누는 살롱의 운영방식에 비중을 둬야 한다. 결국 오늘의 독자들에게 맞는 독서운동은 책읽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함께 책이야기를 즐기는 모임습관 자체를 보급하는 것이다. 독서운동을 따로 하느니, 자치모임을 저마다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낫다. ■